

#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during Childhood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전 미 경  
강 사 장 재 속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i Kyung Jun

Lecturer : Jae sook Ja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during childhood using longitudinal data obtained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Specifically,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impacting the individual children, the home environment factor, and the happiness of children were examined over a 3-years-period. The subjects evaluated in this study included 2,844 children (1,524 boys and 1,320 girls) and 2,844 parents who were administered the KYP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program. The results revealed that happiness that develops during childhood remains stable and constant, which indicates that prior happiness has a strong effect on future happiness. The individual factors affecting the children, which include school-work achievement and extra private education, were foun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at all ages. The use of longitudinal data in this study is a new method in the field of Human Development.

주제어(Key Words) : 아동 (childhood), 행복감 (happiness), 종단적 연구 (longitudinal study)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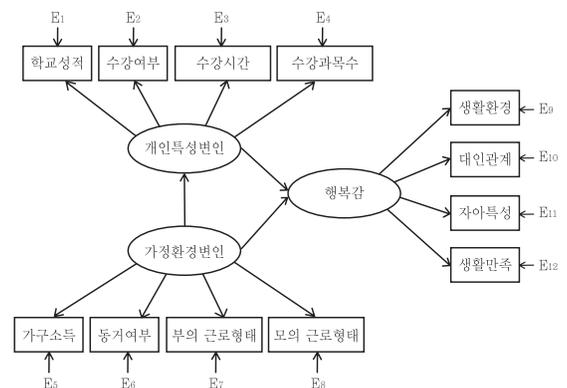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학력이나 언어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데 이러한 행동의 궁극적인 지향은 대개 ‘행복’에 있다. 그만큼 행복이란 현대인의 중요한 삶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행복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인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하면서 긍정심리학이나 행복 혹은 개인의 삶의 질, 만족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8), 그 결과 행복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행복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호, 2004; 김수겸, 2005; 장진우, 2008; 황영원, 2006)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지식 및 학벌위주의 풍토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심리적 압박과 불안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민병기, 2002) 학생들의 행복감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행복연구의 필요성은 다양한 조사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학생들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과의 행복지수 비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바 있으며(중앙일보, 2006. 2. 27), OECD에서 조사한 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은 성취도 측면에서는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의 최상위권을 기록하지만,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는 OECD 위고니에르 교육부국장의 지적 등을 들 수 있다(동아일보, 2004. 12. 8). 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중·고등학생 5,951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경제적 안녕, 자신에 대한 만족, 안전감,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녕)는 53.08점(100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중학생보다 낮아(중학생 = 55.77, 고등학생 = 51.35), 학년 증가에 따라 행복감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고 한 바 있다(이기범, 2008).

최근 학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수의 초등학생들도 각종 과외학습 등으로 인해 중, 고등학생 못지않은 일정을 소화하며 경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초등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외학습을 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보다 더 유능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과외학습과 아동의 행복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먼저 과외학습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으로, 지나친 과외학습은 결국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학습과제 부과로 이어져 오히려 적절한 성취경험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임자성, 채규만 2003). 특히 초 등학생의 경우, 과외학습이 학생 자신의 선택보다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기 쉽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오히려 아이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주요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추자, 1995; 조정희, 1994). 반면, 과외학습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는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거의 모든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사교육을 받음으로써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되어 스스로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조성연 외,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과외학습특성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6학년이 될 때까지의 3년 동안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변화를 분석하고, 연령별 행복감간의 영향력을 추적하는 것으로,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행복감이 연령별로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며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및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가?
- 둘째, 아동의 행복감은 연령에 따라 이후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가?



(그림 1)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행복과 아동의 행복감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행복 연구의 범주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행복(happiness)이란 용어를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안녕감(well-being), 적응(adjustment), 사기(morale)와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연구에서 이들 용어 사이의 불분명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러한 개념들 간의 속성이 유사한 관계로 그 혼용을 막기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행복 역시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연구마다 행복의 정의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행복 연구의 주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즉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정서 등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행복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고찰해 볼 때, 주관적 행복감은 크게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며, 둘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지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셋째, 주관적 행복의 척도는 보통 생활전반에 걸친 전체적 평가가 포함된다는 것이다(김연화, 2007).

한편, 이정화(2004)는 행복에 관한 여러 입장(Andrew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Headey, Holmstrom, & Wearing, 1984)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외적 가치기준에서의 관점으로, 이 관점은 ‘행복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최상의 외적조건을 가진 자들이 가장 행복하지만, 시대나 문화에 따라 이상으로 삼는 행복의 개념은 달라진다. 그러나 외적 가치기준을 중시한 이 접근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객관적인 변인들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행복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행복을 인지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입장으로 행복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경험하는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다. 즉, 행복감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을 긍정적인 방식이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개인의 인지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경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인의 내적인 가치 체계를 중시하는 정의로, 개인이 선택한 주관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평가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상태를 중시한다. 셋째, 행복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개인의 인지적인 내적 과정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에 주목한다. 즉, 행복이란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표출될 수 있는 상황적인 정서 반응양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은 오랜 기간 동안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해 오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행복’이란 용어로 추적하고자 한다. 단, Diener(1984)는 행복이란 용어가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개인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대체하여 행복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물론, Diener(1984)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본 연구가 ‘행복’이란 용어를 선택한 것은 아동이 자신의 만족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보다는 ‘행복하다’는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이들 용어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경계와 하위 속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논의 및 그 한계는 선행연구에 기대어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이란 ‘삶의 만족, 긍정적 사고방식과 같은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 감정으로서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는 박숙경(2002)의 연구결과와 행복은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개인의 일상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 김연화(2007)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생활 환경, 자아특성, 대인관계, 생활만족 등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감정을 행복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국외의 경우 행복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행복에 관한 연구는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복지의 맥락에서 경제적 수준, 성, 인종, 교육수준, 연령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행복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들(Campbell *et al.*, 1976; Gurin, Veroff, & Feld, 1960)로부터 출발되었으나, 실제로 행복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적은 것(Andrew *et al.*, 1976; Costa, McCrae, & Zonderman, 1987)으로 드러나면서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

일지라도 개인에 따라 경험되는 행복감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Diener, Suh, Lucas와 Smith(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나 연령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70년대 후반부터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연구결과 행복은 욕구충족(박영선, 2001; Glasser, 1998; Sullo, 2000), 자기 존중감(Grob, Little, Wanner, & Wearing, 1996), 대인관계(김정자, 1997; Glasser, 1998; Wubbolding, 1998)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면, Myers와 Diener(1995)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고 하였고, Veenhoven(1994)은 자기존중감과 행복과의 상관이 .50 혹은 그 이상임을 밝혔으며, Grob *et al.*(1996)은 자기 존중감과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82로 보고하였다.

한편, 인간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Cohen & Wills, 1985). 그 중에서도 특히 타인과의 좋은 대인관계가 행복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친구와의 우정이나 친구와의 만족은 더욱 그러하다(Wessman & Ricks, 1966).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가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은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들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Burt, 1986; Cohen, 1988; Hotard, McFatter, McWhirter, & Stegall, 1989; House, Landies, & Umberson, 1988). 국내 연구도 아동의 대인관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아동의 개인적 역할은 행복감 증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아동이 지각하는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는 친구, 가족, 교사로서 이 가운데서 아동은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김명숙, 2000). 또래간의 인정이나 도움은 아동의 정서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반면, 친구와의 갈등은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킨다(김정윤, 2000; 이호선, 2001). 특히 친구관계는 아동의 주된 생활영역인 학교생활의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황경미, 1998). 이렇듯 대인관계, 그 중에서도 친구가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이유는 친구는 직장 상사나 친척과 같이 우리에게 이미 결정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훈구, 1998). 또 부모와 교사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가장 의미 있는 타인으로, 아동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과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등은 아동의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해룡, 1994; 김혜경, 1999; 서명진, 1996; 윤광순, 2005).

이 외에도 최근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연화, 2007; 박은영, 2005; 이경숙, 2001; 조정희, 1994)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스스로에게 자신의 행복점수를 매겨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은 100점 만점에 73점을 보고하였으며, '당신은 행복합니까'의 질문에 72.9%가 '행복하다' 혹은 '행복한 편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고등학생에게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점이다. 즉, 성적이 상위층인 학생이 하위층 학생에 비해서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하였다(중앙일보, 2006. 2. 27). 마찬가지로 아동은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 가정, 친구, 부모와의 관계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선화, 류기형, 김경호, 이경남, 홍봉선, 2000).

그렇다면 과외학습 정도와 행복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거의 없지만,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임천순, 박소영과 이광호(2004)의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행복감이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는 과외학습이 학생의 심리적 상태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껏 과외학습과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이 시점에서 두 요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학생의 각 연령에 따른 과외학습의 종류, 강도, 형태, 동기 등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껏 행복이라는 정서 상태와 만족감에 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안정된 개인차 변인들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였으나(Headey & Wearing, 1990), 아직까지 행복에 대한 실증적 연구물들은 많지 않을뿐더러, 설사 있다고 해도 연령이나 주제 그리고 연구방법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국내의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행복, 안녕 등에 관한 연구들이 '안녕감', '복지', '복지감', '행복', '건강' 등 다양한 용어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과 대개 대학생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의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정미, 이양희, 2005). 물론, 최근에는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다수의 연구(김의철, 박영선, 광금주, 1998; 민병기, 2002; 송미영, 2002; 양남희, 한경순, 1994; 한유선, 1996)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아동의 행복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크게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와 아동의 행복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연구의 초점을 아동의 행복감에 맞추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신명덕(2007)은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김연화(2007)는 아동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라고 하였다. 초등학생 5, 6학년 을 대상으로 한 강영하(2005)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본 장수한(2002)은 학년이 높을수록 공부에 대한 압력으로 여가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경제수준, 가족관계, 학교, 친구관계 등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협받지 않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 백수현(2007)은 아동의 일상생활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아동은 친구와 함께 있거나, 집에 있거나, 소극적 여가를 할 때 순간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그 밖에 양정호(2006)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3차 자료를 이용해 고등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분석한 바 있다.

아동의 생활만족을 영역별로 접근하여 천왕성(2004)은 아동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연구하였으며, 강윤정(2005)은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주목하여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훈육형태가 교섭형일 때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접근법으로 문선화 외(2000)은 과거, 현재, 미래의 아동의 삶의 질을 분석하고자 지난 50년간 아동의 모습을 신문 사회면 아동 관련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현재의 삶의 질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아동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의 아동 문제는 과거와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긍정적 삶의 태도를 보이지만 성적, 사회계층, 안정된 가정생활이 아동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유아의 행복감을 접근한 연구로, 김도란(2008)은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영석과 이승은(2002)도 유아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행복, 안녕, 생활만족 등의 개념의 모호함으로 말미암아 지지 않은 선행연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측정도구를 개발하거나 혹은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영하(2008)는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을 탐색한 결과 자기 존중감, 낙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이라는 네 가지 개인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정화(2004)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행복감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의 4개 영역의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 이정미와 이양희(2005)는

Huebner(1994)의 MSLSS(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를 9-12세의 한국 아동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친구, 학교, 가족, 환경, 자아만족도로 구성된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최진원과 이소희(2002)는 아동의 심리적 복지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수정과 안신호(2005)는 행복에 관한 연구가 쾌락주의와 행복주의의 철학적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두 기준 아래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몰입 경험' 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여 각 개념의 정의 및 구성, 측정방법, 이론적 배경, 주요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아동의 행복감 발달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자료 중 일부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약 2,844명의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조사된 자료(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형적인 중단연구로 설계되었으며,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2008년(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대상의 성별, 지역별 빈도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 지역별 빈도(1·2·3차 자료)

변인	성	1차	2차	3차
		빈도(%)	빈도(%)	빈도(%)
성	남	1524(53.6%)	1524(53.6%)	1524(53.6%)
	여	1320(46.4%)	1320(46.4%)	1320(46.4%)
계		2844(100%)	2844(100%)	2844(100%)
지역	서울	514(18.07%)	473(17.47)	472(17.56)
	강원도	75(2.64%)	71(2.62)	72(2.68)
	충청도	299(10.51%)	289(10.68)	285(10.60)
	경기도	831(29.22%)	785(29.00)	763(28.39)
	전라도	312(10.97%)	304(11.23)	301(11.20)
	경상남도 및 제주도	499(17.55%)	484(17.88)	488(18.15)
	경상북도	314(11.04%)	301(11.12)	307(11.42)
	계	2844(100%)	2707(100%)	2388(100%)

#### 2. 연구도구

가. 종속변수 : 아동의 행복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행복감'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강영하, 2008; 양정호, 2006; 이정화, 2004;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을 토대로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 구성을 하였다. 행복감 구성요인은 생활환경, 대인관계, 자아특성, 생활만족 등 4개로 이루어졌으며, 생활환경은 건강, 부모 및 형제간의 정서적 안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인관계는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아특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구성되었고, 생활만족은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행복감의 문항척도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총 22문항이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생활환경 .84, 대인관계 .62, 자아특성 .74, 생활만족 .57로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행복감 구성요인

영역	내용
생활 환경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나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역채점) 나는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잘 지내는 편이다.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역채점)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채점)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채점)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역채점)
	나는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자신이 있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고 있다.
생활 만족	학생은 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 독립변수 :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크게 가정환경변인과 개인 특성변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된 가정 환경변인으로는 가구소득,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의 근로형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개인특성변인으로는 아동의 학교성적 및 과외학습특성(수강여부, 수강과목수, 수강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환경변인 중 부·모의 근로형태는

전일제, 시간제, 무직(전업주부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성적은 현재 학생이 속한 학급 내 성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총 9개 과목의 성적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기보고식 성적이다. 학교성적은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정도로 측정할 점이 제한점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종단으로 추적되는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성적을 모든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최중숙,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 성적은 신뢰도와 객관도 면에서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학업성적을 토대로 자신이 인지한 학업성취도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과외학습특성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체육(무용포함), 기타취미활동(바둑, 붓글씨, 컴퓨터 등)의 9개 과목에 대한 수강여부, 수강과목수, 수강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측정변인 및 측정시기

(표 3) 측정변인 및 측정시기

	측정변인	측정시기			
		4학년	5학년	6학년	
독립 변수	가정환경 변인	가구소득	○	○	○
		부모와의 동거여부	○	○	○
		부모의 근로형태	○	○	○
중속 변수	개인특성 변인	학교성적	○	○	○
		과외학습특성	○	○	○
중속 변수	행복감	생활환경	○	○	○
		대인관계	○	○	○
		자아특성	○	○	○
		생활만족	○	○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일부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Cronbach's  $\alpha$ 값, 상관분석 및 CALIS program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문제 1.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구

〈표 4〉 측정변인들간 상호상관 : 4학년

측정변인	가구 소득	동거 여부	부의 근로형태	모의 근로형태	학교 성적	수강 여부	수강 시간	수강 과목수	생활 환경	대인 관계	자아 특성	생활 만족	전체
가구소득	1.00												
동거여부	.13***	1.00											
부의근로형태	.11***	.08***	1.00										
모의근로형태	.03	.02	-.08***	1.00									
학교성적	.12***	.06**	.07***	.08***	1.00								
수강여부	.01	.02	.01	.01	.10***	1.00							
수강시간	.04*	.00	-.01	-.02	.14***	.25***	1.00						
수강과목수	.11***	.04*	-.01	-.02	.24***	.13***	.52***	1.00					
생활환경	.08***	.04*	-.01	.05*	.40***	.04*	.08***	.12***	1.00				
대인관계	.06**	.03	-.03	.04	.36***	.02	.04*	.05**	.37***	1.00			
자아특성	.09***	.04*	-.04	.06**	.48***	.06**	.09***	.12***	.44***	.43***	1.00		
생활만족	.07***	.02	-.04*	.07**	.33***	.04	.04	.06***	.39***	.34***	.45***	1.00	
전체	.10***	.05*	-.04*	.07***	.52***	.05**	.08***	.11***	.72***	.71***	.75***	.79***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나타난 구조방정식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환경변인, 개인특성변인, 행복감은 이론적, 추상적 개념으로서 직접 관측이 가능하지 않은 변수(잠재변인)이며, 구조방정식에서는 이들이 원으로 도식화되고, 직접 관측이 가능한 측정변수(측정변인)들 - 각 하위요인들-은 잠재변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들은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또한 각 측정변인들에는 측정오차를 설정해 주어야 하며 각 오차의 계수는 항상 1.0으로 고정되어야 하고 잠재변수에 척도를 부여하기 위해 각각의 측정변인들의 요인계수 중 하나를 1.0으로 고정하였다(홍세희, 2000 참조). 가정환경변인의 측정변인은 가구소득,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의 근로형태이며, 개인특성변인의 측정변인은 학교성적, 수강여부, 수강시간, 수강과목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행복감의 측정변인은 생활환경, 대인관계, 자아상태, 생활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4학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 4학년 아동의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

4학년 아동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r = .90$  이하이므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음으로써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변인의 변량에 대한 해석을 모호하게 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양병화, 2000).

4학년의 경우, 가정환경변인과 개인특성변인 모두 행복감과 전반적으로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변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부의 근로형태는 전일제, 모의 근로형태는 전업주부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개인특성변인의 경우 사교육 수강경험이 있고, 수강시간 및 수강과목수가 많고,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특성변인 중 학교성적이 행복감과 높은 정적 상관( $r = .52$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4학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4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본 연구의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전반적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적합도 지수<sup>1)</sup>는 GFI와 AGFI의 값은 각각 .996, .994이고, RMSEA는 .008로 나타나 〈그림 2〉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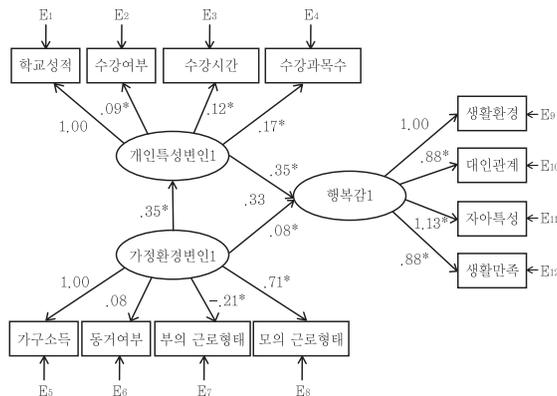
1)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chi^2$ 값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chi^2$ 값 검증을 이용한 모형평가는 영가설("모형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해서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chi^2$ 값이 표본 크기의 영향에 민감하여 표본이 커질수록 영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적으로  $\chi^2$ 값에 의존하여 모형을 기각하지는 않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모형을 평가하는데, 그것이 적합도 지수를 이용한 모형평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로서 GFI, AGFI, RMSEA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다른 모형(예, 독립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론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지수들의 대략적인 해석기준은 다음과 같다(홍세희, 2000).

- ▶ GFI와 AGFI :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 ▶ RMSEA :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

〈표 5〉 〈그림 2〉에 대한 적합도 지수

$\chi^2$	df	GFI	AGFI	RMSEA
55.79	47	.996	.994	.008

〈그림 2〉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4학년 아동의 가정환경변인, 개인특성변인과 행복감간의 관계를 검증한 모형으로, 〈그림 2〉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동의 개인특성변인 및 가정환경변인 모두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 변인의 경우 행복감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초등학교 4학년

〈그림 2〉의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4학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행복감을 총 33%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가정환경변인에서 개인특성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35( $t = 5.82$ ), 개인특성변인에서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35( $t = 5.82$ ), 가정환경변인에서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08( $t = 2.06$ )로 나타남으로써 4학년의 경우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중 개인특성변인과 가정환경변인 모두 행복감을 주요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단, 아동의 개인특성변인이 가정환경변인에 비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의 모형을 기초로 구조경로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이 개인특성 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5이고, 가정환경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8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12로 전체효과는 .20이다. 또한 아동의 개인특성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5로 나타났다.

〈표 6〉 구조방정식 모형의 효과분석 : 초등학교 4학년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가정환경 변인 → 개인특성 변인	.35		.35
→ 행복감	.08	.12	.20
개인특성 변인 → 행복감	.35		.35

2) 5학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 5학년 아동의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

5학년 아동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r = .90$  이하이므로, 4학년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5학년의 경우, 가정환경변인과 개인특성변인 모두 행복감과 전반적으로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변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부의 근로형태는 전일제, 모의 근로형태는 전업주부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개인특성변인의 경우 사교육 수강경험이 있고, 수강시간 및 수강과목수가 많고,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특성변인 중 학교성적이 행복감과 높은 정적 상관( $r = .46$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측정변인들간 상호상관 : 5학년

측정변인	가구 소득	동거 여부	부의 근로형태	모의 근로형태	학교 성적	수강 여부	수강 시간	수강 과목수	생활 환경	대인 관계	자아 특성	생활 만족	전체
가구소득	1.00												
동거여부	.13***	1.00											
부의근로형태	.11***	.09***	1.00										
모의근로형태	.03	.04	-.08***	1.00									
학교성적	.17***	.07***	-.06**	.06**	1.00								
수강여부	.09***	.01	.05**	.04	.08**	1.00							
수강시간	.07**	.01	.00	.03	.07***	.24***	1.00						
수강과목수	.15***	.05**	-.06**	.04	.18***	.14***	.45***	1.00					
생활환경	.09***	.02	-.04	.05*	.36***	.05*	-.01	.07***	1.00				
대인관계	.07***	.01	-.01	.04	.31***	.05*	.03	.07***	.39***	1.00			
자아특성	.10***	.03	-.03	.03	.44***	.03	.04*	.10***	.43***	.39***	1.00		
생활만족	.09***	.03*	-.03	.05*	.27***	.04*	.02	.04*	.38***	.31***	.42***	1.00	
전체	.12***	.04*	-.04*	.07***	.46***	.06**	.03	.09***	.74***	.70***	.74***	.76***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2) 5학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5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본 연구의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전반적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따르면 적합도 지수는 GFI와 AGFI의 값은 각각 .993, .987이고, RMSEA는 .021로 나타나 <그림 3>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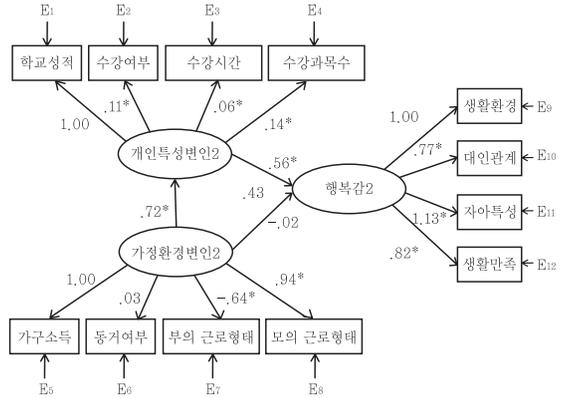
<표 8> <그림 3>에 대한 적합도 지수

$\chi^2$	df	GFI	AGFI	RMSEA
89.14	46	.993	.987	.021

<그림 3>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5학년 아동의 가정환경변인, 개인특성변인과 행복감간의 관계를 검증한 모형으로, <그림 3>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동의 개인특성변인은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정환경변인은 개인특성 변인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5학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행복감을 총 43%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가정환경변인에서 개인특성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72( $t = 2.82$ ), 개인특성변인에서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56( $t = 3.42$ ), 가정환경변인에서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02( $t = 0.15$ )로 나타남으로써 5학년의 경우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특히 개인특성변인이 행복감을 주요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모형을 기초로 구조경로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이 개인특성 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72이고, 가정환경 변인이 행복감에



<그림 3>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초등학교 5학년

미치는 직접효과는 -.02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40으로 전체효과는 .38이다. 또한 아동의 개인특성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6으로 나타났다.

<표 9> 구조방정식 모형의 효과분석 : 초등학교 5학년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가정환경 변인 → 개인특성 변인	.72		.72
→ 행복감	-.02	.40	.38
개인특성 변인 → 행복감	.56		.56

3) 6학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 6학년 아동의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

6학년 아동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r = .90$  이하이므로, 6학년 역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6학년의 경우, 4, 5학년과는 달리 가정환경변인 중 가구소득

<표 10> 측정변인들간 상호상관 : 6학년

측정변인	가구 소득	동거 여부	부의 근로형태	모의 근로형태	학교 성적	수강 여부	수강 시간	수강 과목수	생활 환경	대인 관계	자아 특성	생활 만족	전체
가구소득	1.00												
동거여부	-.13***	1.00											
부의근로형태	-.11***	.09***	1.00										
모의근로형태	-.03	.04	-.08***	1.00									
학교성적	.18***	.07***	-.06	.06**	1.00								
수강여부	.08***	.01	.03	.03	.07**	1.00							
수강시간	.10***	.01	.00	.03	.12***	.32***	1.00						
수강과목수	.13***	.05**	-.06**	.04	.17***	.18***	.50***	1.00					
생활환경	.08***	.02	-.04	.05*	.29***	.03	.06**	.05**	1.00				
대인관계	.06**	.01	-.01	.04	.28***	.02	.05*	.03**	.38***	1.00			
자아특성	.09***	.03	-.03	.03	.39***	.02	.08***	.05**	.39***	.40***	1.00		
생활만족	.08***	.04*	-.03	.05*	.23***	.00	.03	.03	.43***	.34***	.42***	1.00	
전체	.11***	.01	-.01	.04	.39***	.02	.07***	.06**	.75***	.69***	.73***	.78***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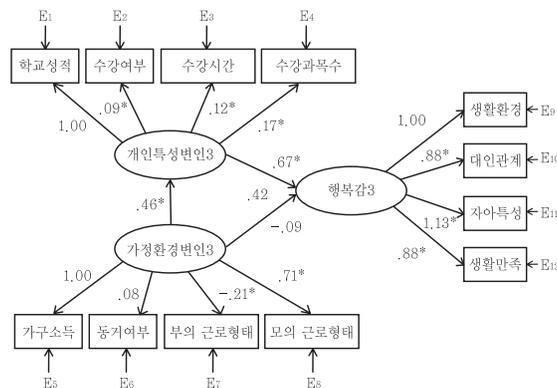
과 개인특성변인만이 행복감과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학년에서는 가정환경변인 중 가구소득이 높고, 개인특성변인의 경우 사교육 수강경험이 있고, 수강시간 및 수강과목수가 많고,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특성변인 중 학교성적이 행복감과 높은 정적 상관( $r = .39$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6학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6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4>와 같으며, 본 연구의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전반적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따르면 적합도 지수는 GFI와 AGFI의 값은 각각 .993, .988이고, RMSEA는 .020으로 나타나 <그림 4>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1> <그림 4>에 대한 적합도 지수

$\chi^2$	df	GFI	AGFI	RMSEA
82.19	46	.993	.988	.020



<그림 4>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초등학교 6학년

<그림 4>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6학년 아동의 가정환경변인, 개인특성변인과 행복감간의 관계를 검증한 모형으로, <그림 4>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동의 개인특성변인은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정환경변인은 개인특성변인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의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6학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행복감을 총 42%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가정환경변인에서 개인특성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46( $t = 1.94$ ), 개인특성변인에서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67( $t = 4.34$ ), 가정환경변인에서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09$ ( $t = -0.88$ )로 나타남으로써 6학년의 경우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특히 개인특성변인이 행복감을 주요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구조방정식 모형의 효과분석 : 초등학교 6학년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가정환경 변인 → 개인특성 변인	.46		.46
→ 행복감	-.09	.30	.21
개인특성 변인 → 행복감	.67		.67

<그림 4>의 모형을 기초로 구조경로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이 개인특성 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6이고, 가정환경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 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30으로 전체효과는 .21이다. 또한 아동의 개인특성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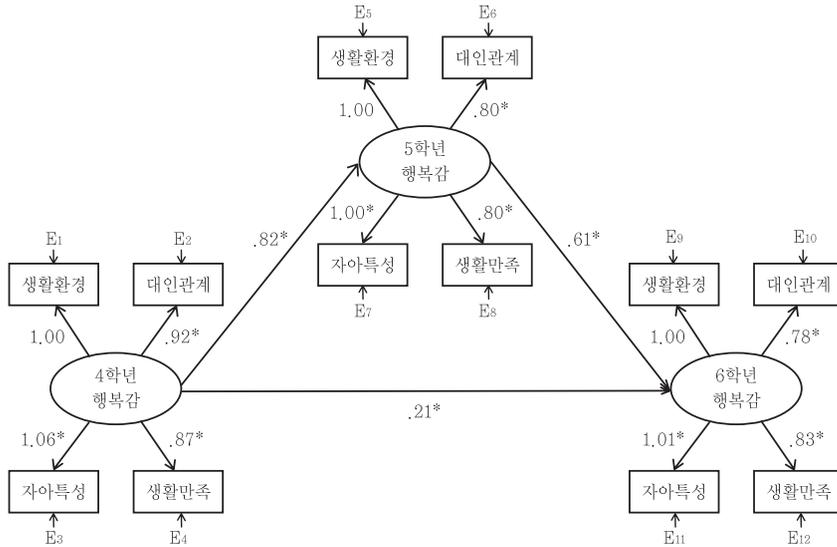
연구문제 2. 아동의 행복감은 연령에 따라 이후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가?

아동의 행복감이 연령에 따라 이후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5>와 같으며, 본 연구의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전반적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 따르면 적합도 지수는 GFI와 AGFI의 값은 각각 .925, .877이고, RMSEA는 .095로 나타나 <그림 5>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자료에 비교적 잘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3> <그림 5>에 대한 적합도 지수

$\chi^2$	df	GFI	AGFI	RMSEA
1155.74	47	.925	0.877	0.095

<그림 5>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아동의 행복감이 연령에 따라 이후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그림 5>의 결과를 요약하면, 4학년 때 행복감은 5학년 때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학년 때 행복감 역시 6학년 때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학년 때 행복감은 6학년 때 행복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



〈그림 5〉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전체

학년에서 5학년, 5학년에서 6학년으로의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의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4학년과 5학년 때 행복감이 6학년 때 행복감을 총 57%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 행복감에서 5학년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 계수가 .82( $t = 22.64$ ), 5학년 행복감에서 6학년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 계수가 .61( $t = 10.98$ ), 4학년 행복감에서 6학년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 계수는 .21( $t = 3.90$ )로 나타남으로써 4학년부터 6학년으로의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4학년부터 5학년으로, 5학년부터 6학년으로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전 시점에서의 행복감이 이후 시점에서의 행복감을 더 주요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4학년 때 행복감이 높은 경우, 5학년 때 행복감이 높기 쉬우며, 5학년 때 행복감이 높은 경우, 6학년 때 행복감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령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총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 의하면,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총 설명력은 4학년 33%, 5학년 43%, 6학년 42%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전체 설명력<sup>2)</sup>이 지속적으로 높은 편임을 볼 수 있다.

〈표 14〉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변인의 설명력

행복감	전체 설명력
4학년 행복감	.33
5학년 행복감	.43
6학년 행복감	.42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여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중단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사회인구학적변인 중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아동의 개인특성변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 가정환경변인과 개인특성변인 모두가 행복감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특히 개인특성변인의 영향력은 가정환경변인에 비해 영향력이 훨씬 컸으며, 가정환경변인은 개인특성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 5학년과 6학년의 경우, 아동의 개인특성변인만이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가정환경변인은 개인특성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연령의 변화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주요변인은 개인특성변인이며, 가정환경변인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변인의 경우,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2) 전체 설명력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잠재변인에 대한 전체변량에서의 설명력을 의미한다. 즉, 초등학생의 개인특성변인과 가정환경변인이 행복감이라는 변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변량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서의 R-square 값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구소득 자체가 아동의 행복감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해짐으로써 학업성적 향상 등에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 생활에 대한 적응도 또한 높아져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가정환경변인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데는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가정환경변인은 정서적 환경을 포함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발달에 가정환경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백수현, 2007; 신명덕, 2007; 정은선, 2008)중 대다수가 가정환경변인 중 정서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변인이 정서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낮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동시에 그렇다고 물리적 환경이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 역시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환경변인을 물리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특성변인 중에서도 특히 학교성적이 아동의 행복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적은 단순히 학업능력의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임경혁, 1994; 최순복, 1985), 학교 부적응아는 학업성취도가 낮기 때문에(안영복, 1994), 학업성적과 행복감의 정적관계는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 학교성적과 행복감간 상관정도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학교성적 외에 다른 독립변인들 역시 연령에 따라 행복감과의 상관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험이 많아지면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또한 다양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성적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과외학습 관련 변인들이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 또는 불일치한다. 즉 아동의 지나친 사교육은 아동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임자성 외, 2003; 정추자, 1995)와는 부분적으로 불일치하지만, 요즘 아동들은 사교육을 통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점, 더 나아가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동 스스로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조성연 외, 2008)와는 일치한다. 물론, 아동의 사교육과 행복감간의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단지 사교육의 수혜 여부나 수강시간 및 과목 수에 준해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교육을 접하게 된 아동의 태도나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사교육을 받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행복하다고 단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사교육의 경험이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의 부담감은 아동의 자살과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지만(중앙일보, 2002, 11, 11) 초등학교 아동의 91.9%가 과외학습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권재기, 2001)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과외학습을 받지 않는 아동이 일반적이지 않은 아동으로 비취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과거와 달리 사교육이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높다. 과외학습의 대부분은 아동의 학업성취 향상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취미활동과 관련된 과외학습 역시 아동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적성의 개발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외학습은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연령별 아동의 행복감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4학년 때의 행복감이 5학년 때의 행복감에 그리고 5학년 때 행복감이 6학년 때의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4학년 때의 행복감 역시 6학년 때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4학년에서 6학년으로의 영향력에 비해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에서 6학년으로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시점에서의 행복감이 이후 시점에서의 행복감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행복감이라는 정서의 발달이 안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중단적 연구를 통해 생활만족과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이 시간적으로 안정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Costa & McCrae, 1988; Mangus, Diener, & Fujita, 1993; Suh, Diener, & Fujita, 1996; Watson & Walker, 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10년 전에 행복했던 사람은 10년 후에도 계속 행복했다는 Costa et al.(1987)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행복수준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변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Headey, Veenhoven과 Wearing (1992)의 역동적 균형이론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해 보인다. 다시 말해 행복감이라는 정서가 연령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다 넓게 해석한다면 아동기 때 형성된 행복감이 성장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이 어린 시절 행복의 경험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아동이 행복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가정의 물리적 환경 및 정서적 환경의 제공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행복감 구성요인 중 행복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4가지의 구성요인 모두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자아특성이 지속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다. 즉 아동의 행복감의 주된 구성요인은 아동의 자아특성, 즉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존중감을 주관적 안녕의 구체적 구성요소로 간주하여, 자기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과 동격이라고 한 Veenhoven (1991)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동의 행복감은 가정환경변인보다 개인특성변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연령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종단적 접근을 통해 연령의 변화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행복감이라는 정서가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물론,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는 존재하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가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라는 점, 더 나아가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종단적 자료가 갖는 몇 가지 제한점을 밝힌다면, 첫째, 한 동시집단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다른 세대에 일반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행복감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것은 아니므로, 행복감을 분석하는 데 변인 선택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 환경변인과 개인특성변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또한 가정환경변인 또는 개인특성변인내에서도 더 많은 변인들의 포함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양한 변인들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모형의 설명력에 제한을 가져왔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는 제한으로 인해 변인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자료는 종단적 자료로서 인간발

달에 대해 횡단적 자료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행복감, 즉 각 발달단계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강영하(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교육연구**, 5(2), 1-21.

강영하(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21(2), 159-177.

강운정(2005).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12(2), 187-204.

권재기(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과외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경호(2004).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유형과 가족의 건강성, 무력감, 자긍심 및 행복감의 관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도란(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명숙(2000). 아동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역량지각. **한국생활과학회지**, 4(1), 31-38.

김수겸(2005). 성인의 스포츠참여와 관련변인 및 주관적 행복감간의 인과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연화(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의철, 박영신, 광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3, 79-101.

김정운(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자(1997). 한국기혼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1. **여성학연구**, 7(1), 1-45.

김해룡(1994). 아동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경(1999).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아일보(2004. 12. 8). OECD 교육부국장 “한국학생 성취도, 사교육과는 무관”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412080362> 에서 2008년 09월 20일 인출.

- 문선화, 류기형, 김경호, 이경남, 홍봉선(2000) 아동의 삶의 질: 과거, 현재, 미래. **한국아동복지학회, 9**(1), 9-49.
- 민병기(2002).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숙경(2002). '행복을 끌어오는 집단상담' 이 대학생들의 행복에 대한 자각,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 인간관계, 내적통제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생활연구소, 16**-69.
- 박영선(2001). 현실치료집단상담이 주부들의 대인관계 변화와 심리적 욕구충족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영(2005). 초등학생의 과외학습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수현(2007). 아동의 일상생활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대도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명진(1996). 아동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영(2002).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명덕(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복감간의 관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영복(1994).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남희, 한경순(1994).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의 질 만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자연과학연구, 17**, 87-109.
- 양병화(2000). **다변량분석 자료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양정호(2006). 한국의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567**-581.
- 윤광순(2005). 교사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순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숙(2001). 초등학교 아동이 인식하는 과외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범(2008).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의 행복감. **2008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 아동이 행복한 사회, 51**-65.
- 이수정, 안신호(2005).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 개관. **심리과학연구, 4**, 123-143.
- 이영석, 이승은(2002). 부모와 교사가 가진 DAP 신념의 일치와 불일치가 유아의 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59-82.
- 이정미, 이양희(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8**(2), 121-137.
- 이정화(2004).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호선(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구(1998). **행복의 심리학**. 서울: 법문사.
- 임경혁(1994). 학급환경, 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자성, 채규만(2003).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95-311.
- 임천순, 박소영, 이광호(2004).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3**(1), 331-356.
- 장수한(2002). 아동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 **인간환경복지연구, 2**, 195-223.
- 장진우(2008). 대학생을 위한 행복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선(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추자(1995). 사회적 지지모임이 뇌, 척수 손상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간호학 탐구, 4**(2), 124-144.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2008). 한국의 아동은 행복한가? **2008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 아동이 행복한 사회, 67**-84.
- 조정희(1994). 초등학교 아동의 과외수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일보(2002, 11, 11). 초등생 자살계기로 본 사교육 실태 '초등 3년생이 특목고 준비'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1264219](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1264219) 에서 2008년 9월 23일 인출.
- 중앙일보(2006, 2, 27). 한국학생 행복은 성적순?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발표.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215263](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215263) 에서 2008년 9월 22일 인출.
- 천왕성(2004).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순복(1985). 고교생의 지능 학업성취와 적응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최중숙(2006). 한국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종단본

- 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진원, 이소희(2002). 아동의 심리적 복지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3(4), 227-248.
- 한유선(1996). 청소년의 주변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변인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심리현상의 분석: 집단 변화 및 심리특성에 관한 다변인 자료분석 방법.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연구방법론 워크샵.
-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영원(2006).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drew, F. M., & Witn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Burt, R. S.(1986). Strangers, friends and happiness(GSS technical report No. 7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Cohen, S.(1988). Psychological model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etiology of physical disease. *Health Psychology*, 7, 269-297.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01-357.
- Costa, P. T., & McCrae, R. R.(1988). Personality in adulthood : A six-year longitudinal study of self-reports and spouse rating of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53-863.
- Costa, P. T., McCrae, R. R., & Zonderman, A. B.(1987). Environmental and dispositional influences on well-being: Longitudinal follow-up of an American national sampl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8, 299-306.
- Diener, E.(198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scale: A measure of glob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1999). Subjective well 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mmons, R. A., & Diener, E.(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 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89-97.
- Glasser, W.(1998). The choice theory: A new psychology of personal freedom. New York: Harper & Row.
- Grob, A., Little, T. D., Wanner, B., & Wearing, A. J. (1996). Adolescents well-being and perceived control across 14 sociocultural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85-795.
- Gurin, G., Veroff, J., & Feld, S.(1960). Americans view their mental health. A nationwide Interview Survey. New York: Basic Books.
- Headey, B., Holmstrom, E., & Wearing, A.(1984). Well-being and Ill-being: Different dimens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 115-139.
- Headey, B., Veenhoven, R., & Wearing, A.(1992). Top-down versus bottom-up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81-100.
- Headey, B., & Wearing, A.(1990).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31-739.
- Hotard, S. R., McFatter, R. M., McWhirter, R. M., & Stegall, M. E.(1989). Interactive effects of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social relationship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21-331.
- House, J. S., Landies, K. R., & Umberson, D.(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41, 540-545.
- Huebner, E. S.(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 Mangus, K., Diener, E., & Fujita, F.(1993).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as predictors of life-event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65, 1046-1053.
- Myers, D. G., &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Suh, E., Diener, E., & Fujita, F.(1996).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91-1102.
- Sullo, R. A.(2000). 아이에게 행복을 가르쳐주세요. 한 귀선(역). 서울: 사람과 사람. (1993년 원저 발간).
-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Veenhoven, R.(1994). Correlates of happiness, (3Vols). Rotterdam, The Netherlands: RISBO, Center for Sicio-Cultural Transformation.
- Watson, D., & Walker, L. M.(1996). The long-term st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rait measure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567-577.
- Wessman, A. E., & Ricks, D. F.(1966). *Mood and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lt & Winston.
- Wubbolding, R. E.(1998).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김은진(역). 서울: 사람과 사람. (1990년 원저 발간).

---

접 수 일 : 2008년 11월 28일

심사시작일 : 2008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 2009년 3월 17일